

때가 왔고...(The time has come)¹⁾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김태건 역

런던의 코우니(Colney)에서 남반부와 북반부 지역 소속 교회의 참여 속에 포럼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이는 지난 1997년 데브레첸(Debrecen)에서 열린 제23차 총회를 시발점으로 하는 후속 모임이었다. 지난 제23차 총회에서는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산하 교회들이 초청된 가운데 경제적 불의와 생태학적 파괴란 세계적 현안에 대해 '문제의 인식과 교육과 신앙 고백' 등의 주제별로 포럼이 열린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지역 소속 26개 교회 대표들이 회동한 가운데 2004년 아크라(Accra)에서 개최될 차기 총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신앙적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신앙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추진되어 오면서 현재 인간과 모든 창

1) 이 글은 2004년 2월 8-14일까지 영국 런던 코우니에서 열린 지구의 남반부와 북반부 지역 소속 교회의 참여 속에 열린 WARC 포럼에서 논의된 "경제와 생태계의 정의 구현을 위한 언약의 모임과 관련한 신앙적 입장(Faith stance on Covenanting for justice in the economy and the earth)"이다.

조물은 실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삶이 위기에 처하면서 고통과 파괴가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와 굶주림, 에이즈 같은 질병, 사회적 불안 및 생태학적 파괴 등과 같은 삶의 고통이 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구의 남반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의 힘이 이젠 북반부 국가들 내에서조차 이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 및 생태학적 문제들은 상호 연계되어 실로 재앙과도 같이 서로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끊임없이 모든 창조물을 생명의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상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란 시장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공익이란 문제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사회적인 책임을 유기(遺棄)하고 있는 상태다. 소수의 소유자가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시장의 규제 완화 조치에 편승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그저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을 최대화하는 일일 따름이다.

또한 금융 자본이 경제를 장악하게 되면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킨 채 투기를 조장하여 특정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을 영원한 부채의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자본의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신 기업과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전략은 흔히 특정 지역 내에 실업과 노동 조건의 악화, 노동력의 강제 이주 및 구조적 부채의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 경제 기구들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구조 조정 정책, 민영화 정책, 지역 통화의 평가 절하 및 사회적 서비스의 감축 등과 같은 거시 경제 정책들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창조물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연은 그저 소비와 부(富)의 창출을 위한 원자재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이러한 시각에

선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不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적으로 세상의 만물과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또한 찾아 볼 수가 없다. 산업 경제가 추구하는 무한 성장 정책은 지구 자원의 수탈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의 산업화 정책으로 영세농들은 실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종(種)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창조물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제국은 세계전의 수행을 위한 전략 구축의 차원에서 현행 군국주의의 추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파괴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정책과 세계적 규모의 지정학적 접근이란 두 가지 추세가 통합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태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 기술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군사력과 세계 시장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적 폭력은 인종 차별, 카스트 제도 및 성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난으로 인해 여자들은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여자와 어린이를 매매하는 문제는 착취의 단계를 넘어 이제 상품화와 노예화의 단계에까지 접어들었다.

사회, 경제, 생태학적 문제가 악화 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전염병과 질병이 세계 도처로 퍼져나가면서 인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전염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극빈 국가들에게 경악할 만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으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제약 업체들로 인해 거의 대부분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아 보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갈수록 기업의 통제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언론 매체들은 인간의 의식을 식민지 상태로 몰아가면서 시장의 소비 중심적 가치를 부단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어주고 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핵심에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내지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는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컨센서스의 핵심적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경쟁과 소비와 부의 무한 축적이 모든 세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2) 자본주의 시장은 여하한 사회적 의무도 없는 사유 재산과 계약의 원칙을 유일한 합법적 근거로 삼는 바탕 위에 구축되었다.

3) 공익(公益)은 시장의 자유화와 규제 철폐에 더하여 민영화, 외국의 투자와 수입에 대한 개방 및 자본과 낮은 세금의 무제한적 이동 등이 보장되는 시장 관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부유한 자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정치적 기구와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서 막상 자신들이 남에게 요구한 시장의 관행은 따르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변을 늘어놓으며 가난한 자들과 창조물로부터 끝도 없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다.

- 고통과 파괴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생명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해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 즉 인간과 지구의 온전한 삶을 위한 성서적 비전을 제시받은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 비전의 구현에 헌신할 것인바,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다음과 같이 여러모로 상반되는 모습을 지닌다.

① 성서적 비전은 기본적 삶의 수요의 충족과 인간의 번성을 지향하는 것이지 생산성과 소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이사야 65, 디모데전서 6)

② 성서적 비전은 그 추진력이 보살핌과 나눔에 있는 것이지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누가 12:16-21)

③ 성서적 비전은 결속을 통해 생명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독려하며 개인주의를 거부한다.(사도행전 4-5)

④ 성서적 비전은 실물 경제를 금융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을 실물 경제의 서비스에 종속시킨다.(누가 19)

⑤ 성서적 비전은 구조적 부채와 상실된 토지의 문제를 희년(禧年)의 준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환경을 존중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 결코 환경 파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따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레위기 25)

⑥ 성서적 비전은 삶의 모든 공간 즉 물질적, 정신적, 영적 공간 등이 시장의 목적에 종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시편 85:10)

이제 우리는 교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교회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와 창조물의 신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히 부응토록 명하신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정책의

불의에 항거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주권적 소유자이심을 믿는다
(창세기 2:8-9)**

우리는 시장 경제와 돈의 힘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기아와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창조의 교리(창세기 1장)를 악용하여 생명, 특히 여자와 지구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파괴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이라 믿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믿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타도하려 드는 이 세상 권세자들의 일체의 주장을 거부한다. 우리는 대규모 자본의 소유자들이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공익을 저버린 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부당하게 절대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이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소유권을 부인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발상을 거부한다.

우리는 창조하신 만물을 길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란 모든 창조물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품위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친교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창조물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믿는다(창세기 9:8-12)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봉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결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배와 착취의 법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그 어느 계약보다도 우

선하며 또 이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 언약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포괄적 언약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이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이 언약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공범이 되어 저질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계급, 인종, 성별, 신체적 불구, 성적 지향성 내지는 민족적 배경 등의 온갖 차별적 시각을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어떤 단체나 국가든 하나님의 언약이란 성서적 개념을 남용하여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배경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자를 소외시키려드는 시도가 있다면 이러한 행태를 거부한다. 우리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거부한다. 우리는 성서나 기독교 신앙을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으로 남용해 온갖 형태의 지배를 합리화하려 드는 시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모든 창조물을 공동의 삶의 장으로 초대하여 상호 참여의 관계성 속에 살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우리가 이를 통해 필요한 것을 짓고 나아가 이를 보존하고 보살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한다.(창세기 2장, 고린도전서 10:23-26)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열과 소외가 극복이 된다고 믿는다. 모든 공동체와 국가와 우주에는 ‘생명의 연합체’(unity of life)가 존재한다(에베소서 2:11-21)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온 우주는 ‘생명의 연합체’로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신앙과 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폄하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분열과 분파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무한 경쟁과 적자생

존이란 냉소적 사회 이론을 거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포괄적 실체가 되도록 소명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4)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땅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음을 믿는다.

성령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통해 펼쳐진 생명의 동산의 비전을 늘 새롭게 하시며 또 이것이 지속되어 가게 하신다(골로새서 1:16-18, 계시록 21:1-5). 성령은 우리가 서로 친교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비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를 믿지 못한 탓에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정의와 평화와 소망의 비전을 편협한 시야로 밖에 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성령을 영혼의 문제로만 한정지어 접근함으로써 개인주의 사상을 합리화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물질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현대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를 통해 지배하려 드는 시장의 추세를 거부한다.

우리는 성령이 모든 창조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경제와 생태계의 정의 구현을 위한 언약

우리 개혁교회연맹 동료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지금이 자리에서 선택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인간과 지구가 고통 받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미온적 대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시간과 정력, 아니 우

리의 모든 것을 바쳐 경제와 지구를 변화시키고 소생시켜 이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헌신할 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반대한다.

- 가난한 자와 창조물을 희생시키면서 개인과 기업의 이득을 위해 생산성과 소비와 부의 축적을 극대화하는 행위
- 시장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위
- 인간과 지구를 억압하고 현행 경제 논리를 옹호하기 위해 성서를 원용하는 행위
- 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행위
-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부당한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의 행위
- 영세농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농업 부문의 합병 행위
- 실직 사태와 환경 착취를 초래하는 구조 조정 정책
-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한 금융 투기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
- 상환 불능 지경에 이른 심각한 외채 문제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내뱉는 고통의 절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죄
- 억압적이고 예측적인 세력에 맞서 선지자적 자세로 이에 질타를 가하지 못한 죄
- 목하 시장 논리에 맞서 경제에 대한 성서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죄
- 특히 북반부 국가들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과소비의 추세에 굴복하고 만 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다음과 같이 언약 하였다.

- 우리는 공동체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한 나라와 국민 전체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구조적 부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우리는 정부가 자국민과 자국 시장 보호 정책을 통해 국내의 사회 간접자본, 의료 보험 및 교육 등의 제반 정책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우리는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우리는 보편적 인권의 옹호를 주창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진작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다자간 협상과 일방적 협상 등을 추진해 무장 해제를 통한 평화 구축 작업에 진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환경을 배려하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경제'를 증거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 우리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경제적 불의와 생태학적 파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과 신앙 고백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도출해 낼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나아가 소망의 징표로써 다음과 같은 공동 협력 사업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세계적 에큐메니칼 단체 및 신앙 공동체 등과 손잡고 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언약의 모임에 동

참할 것이다.

- 민간, 대중 및 시민운동 단체들과 정의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 실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 운동'(the Fair Trade and Just Trade movement) 등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의 다양함과 지구의 도처에 생명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양식과 만물의 상호연계성 등을 보며, 나아가 만물을 양육하는 청지기과 같은 특별한 직분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당신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인간 상호간에 그리고 땅과 더불어 친교하며 살도록 하셨으나 우리가 만물 중에 인간에게 부여된 이러한 직분을 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파괴가 아니라 소생과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부름에 응할 때에 두려움과 일관성의 결여와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 경제적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부정적 영향에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구하오니 이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방편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사악함과 죽음의 권세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당신의 교회에 권능을 베푸사 교회가 진실로 당신의 소리를 대변하며 삶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당신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